

오~ 놀라 워라



바다 악어 화석

돌에 새겨진 지구의 역사



박물관 기행

<5> 신안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

폐교된 안창초교 리모델링해 2019년 7월 개관
박윤철 관장 평생 수집해 기증한 3000여점 전시
중국·브라질 등 세계 20여개국 화석·광물 다채

개관 초기 하루 1000여명 방문...팬데믹 후 주춤
"지역 관광 활성화·학생들 학습 자료 활용됐으면"



암모나이트 화석



나무 화석

지구의 역사와 흔적을 담고 있는 희귀한 돌들을 모아 놓은 이
석박물관이 '1004살'에 있다. 바로 신안군 안좌면 대리길에 위치
한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관장 박윤철)'이다.

신안군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안창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난 2019년 7월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박
물관을 개관했다. 주변에 산과 바다가 있고, 한적한 마을의 한 곳
에 자리 잡고 있어 말 그대로 자연 속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신안 지도읍 출신의 박윤철 관장이 평생 모아서 기
증한 화석과 광물 등 3000여점이 소장돼 있다. 젊은 시절 낚시를
즐기다 바닷가 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수석을 시작한 그는 80
년대 중반 해외로 진출해 수석 영역을 넓히다가 광물과 화석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 10여개국
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돌을 수집했으며, 현재 박물관에는 20여
개국의 광물과 화석이 전시되고 있다. 이렇게 모은 것이 광물·화
석·수석 각각 1000여점씩에 이른다고 소개한다.

평소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박 관
장은 "그간 모은 돌을 고향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 군에 기증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
을 밝혔다.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은 총 2개동 4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
다.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인지 전시물도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고, 전시 공간도 비교적 넓어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 관
장은 개관 초기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렸다고 한다.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이 찾아온 적이 있으며, 당시 입장객을 카운트
했던 기계에 1200이라고 숫자가 표기된 것을 사진 찍어놓았을
정도이다. 아쉽게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하루 평균 70여명으
로 줄었다고 한다.

박물관 관람에 앞서 박 관장이 광물과 화석에 대해 설명한다.

"자연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물질들은 일정
한 화학적 요건이 조성되면 무기적으로 결합해 각기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천연 고체가 광물이다. 광물
은 일정한 방향으로 평탄하게 쪼개지는 단면(벽개면), 색상, 투명
도에 따라 아름다움이 나뉘며, 가공 후 보석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어 그는 "화석은 생물의 사체가 훼손되기 전에 퇴적물에 의
해 급속히 묻혀 사체를 부식시키는 환경과 차단되고, 세월이 흐
르면서 광물질 침투와 같은 다양한 화석화 작용을 거쳐 단단히
굳어져 남겨지는 것이다. 수십억 년, 수억 년을 잠자던 화석은 지
각변동으로 지층이 융기되거나, 풍화작용이 거듭되면서 지표면
에 노출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월별로 지정된 '탄생석 광물'에 대해 박 관장은 "자신의
탄생석을 몸에 지니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인다.

참고로 탄생석은 다음과 같다. 1월 가넷(진실, 우정), 2월 자
수정 (평화, 성실), 3월 산호(총명), 4월 다이아몬드(고귀), 5월
에메랄드 (행복), 6월 진주(건강, 부귀), 7월 루비(용기, 정의),
8월 페리도트 (부부의 화합), 9월 사파이어(진리, 불변), 10월
오팔(희망, 순결), 11월 토파즈 (우정), 12월 터키석 (성공, 승
리).

먼저 광물 전시관에 들어서니 다양하고 화려한 광물들이 늘어
서 있다. 그 중 형광 광물이 눈에 띈다. 형광 광물이 보관된 박스
안을 암실처럼 불을 끄고 광물에 자외선을 쬐이니 다양한 형광색
이 밝게 비친다. 밝은 곳에서는 평범한 돌인데 이렇게 신비스러
운 빛을 발하는 것을 보니 놀란다. 다음은 투명한 케이스에 덮여
있는 운석이다. 중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색깔은 검다. 한번 들어
보라는 박 관장의 권유에 들었더니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이어
아프리카 남동쪽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 구입한 것으로 걸
은 검정인데 안은 노란색에 검은색 반점이 여러 개 보이는 벽옥
으로, 박 관장은 희귀한 광물임을 강조한다.

화석전시관에는 놀라울 정도의 화석들이 많이 전시돼 있다. 애
호박처럼 길쭉한 모양에 두 쪽으로 나뉘어져 포개져 있는 돌을
펼쳐보니 양 쪽면에 생선뼈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수십 마
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있고, 어미 물고기와 새끼 물고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의 화석 등 여러 종류의 어류 화석들이 있다. 마
치 지구의 옛 바닷속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수 백개의 소
라가 모여있는 화석이 있는데, 이는 서서히 가물어 가는 과정에
수 많은 소라들이 모여있다가 화석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거북이와 자라의 배설물, 맘모스 뼈 등 다양하
고 신비스러운 화석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을 둘러본 뒤 박 관장은 자신의 연구실을 소개한다. 합판
처럼 여러 겹 모양의 휴판에서 화석을 채취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
준다.

향후 박물관 운영 방향에 대해 박 관장은 "교육청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에서 서로 협업체에 박물관 전시품들이 학습 자
료로 활용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시스템으
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조용한 신안군 안좌면에 있는 세계 화석·박물관이 박 관장의
소망대로 유익하고 신비한 박물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글·사진=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벽옥



시조새 화석



광물전시관 광석들



신안군 안좌면 대리길에 위치한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 전경.